

온누리교회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생명까지도 던진故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는 교회

The Onnuri Weekly

<http://news.onnuri.or.kr>

• 발행인: 이재훈 • 편집국장: 장선철 • 부장: 김남원 • 기자: 정지은, 오은지, 조유진, 조은실 / 140-240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71-106 / 신문사 3215-3199 / 570-7611 서빙고 793-9686 양재 573-9686

2014 선교헌금 작성



2014 선교헌금 작정을 1월 5일과 12일에 실시한다. 내년에는 온누리 선교 정보전략 연구소(가칭) 설립, 선교 포럼 개최 등의 사역을 진행한다. 올해 온누리교회는 블레싱 한반도를 주제로 복음통일을 준비했다. 사진은 지난 7월 임진각에서 8,100여 명의 성도들이 복된 땅을 바라보며 부르짖은 '올여라 한반도여 집회'.

1월 5일, 12일 ... 새해 첫 헌금 봉헌 선교지 상황 및 사역 소개 책자 배포

온누리교회가 지켜온 아름다운 전통이 있다. 창립 이후 지금까지 매년 1월 첫째 주와 둘째 주 주일에 선교헌금을 작성해온 것이다. 2014 선교헌금 작정을 1월 5일과 12일 두 차례

에 걸쳐 실시한다. 내년에는 교회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다양한 준비와 사역을 진행한다.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온누리 선교 정보전략 연구소(가

칭)'가 설립되고, 세계선교동향과 능동적 지원 방법 모색을 위한 선교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선교사 리더십을 양성하기 위해 글로벌 리더십 장학금을 지원하고, 인터넷 신학교 과정도 준비할 계획이다. 은퇴 선교사 복지도 한층 강화된다. 또 90여 명의 신규 선교사를 파송할 예정이다. 올해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2만 6천여 명의 성도들이

선교헌금에 동참했다. 선교헌금을 통해 25개국 105명의 신규 선교사를 파송했고, 블레싱 한반도를 통해 통일한국 시대를 준비했다. 인도네시아, 네팔, 스리랑카 등지에 선교베이스를 구축하고 확장했다. 이 외에도 안식년 중인 선교사 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사역을 감당했다.

선교헌금 작정은 1월 5일과 12일

온누리 모든 캠퍼스 주일예배에서 진행된다. 작성서 기입과 봉투, 직접 계좌이체 방식 중 택할 수 있다. 올해는 125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오늘(29일)부터 선교지 상황과 사역을 소개하는 책자가 배포된다. 성도들은 관심지역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이메일 혹은 편지로 받아 볼 수 있다. 문의 02-3215-3209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CGNTV·세라핌합창단 업무제휴

CGNTV와 세라핌합창단이 업무제휴식을 갖고 사회공헌과 선교의 시너지효과를 내는데 힘을 합치기로 했다. 지난 20일 CGNTV 본사에서 CGNTV와 세라핌 합창단이 업무제휴를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세라핌합창단은 CGNTV에서 전속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CGNTV는 관련 콘텐츠 개발

과 활용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게 되었다.

CGNTV 유재건 대표이사는 "우리의 동역이 선한 영향력과 자긍심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고 세라핌합창단 단장 홍종철 장로는 "양 기관 발전에 있어 의미 있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성금과 물품 나누기 캠페인

“어려운 이웃들을 도읍시다”

서빙고동사무소와 서빙고동 인근 교회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성금과 물품 나누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이번 캠페인은 2014년 2월 16일까지 이어진다. 온누리교회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캠페인에 참여하면 기부금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서빙고동, 동빙고동, 주성동에는

노인, 장애인, 환자 등 98가구의 차상위 계층이 밀집되어 있다. 그동안에도 온누리교회를 비롯한 지역교회들과 서빙고동사무소가 힘을 합쳐 이웃들을 도아 왔다.

문의: 02-2199-8697

후원계좌: 015-176590-13-534

우리은행 예금주: 사회복지공동모금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차세대 온가족 새벽기도회

기간: 1월 2일(목)~25일(토)

1월 2일 차세대 기도카드 배부(본당 입구), 참석 시 확인도장

1월 25일 매일 참석한 가족에 소정의 선물, 기념사진촬영

문의: 서빙고 안민경 간사(02-3215-3523)

도로명 주소 시행

1월1일부터 도로명 주소만 법정주소로 인정됩니다. 주소를 변경해 주십시오.

- 1.School로그인후개인정보변경
- 2.목회지원실에서 개인정보 수정 신청
- 3.공동체 소속일 경우 순장에 게 요청

휴대폰 번호 변경

12월 1일부터 휴대전화 번호가 010으로 자동전환 되었습니다. 번호를 변경해 주십시오.(2G 단말기 제외)

- 1.School 로그인 후 휴대폰 번호 변경
- 2.목회지원실에서 개인정보 수정 신청
- 3.공동체 소속일 경우 순장에 게 요청

2014 송구영신예배 및 신년예배			
캠퍼스		송구영신예배(12/31)	신년예배(1/1)
서빙고	1부	오후 9시	오전 9시
	2부	오후 11시30분	오전 11시30분
양재	1부	오후 9시	오전 9시
	2부	오후 11시30분	오전 11시30분
부천	1부	오후 9시	오전 9시
	2부	오후 11시30분	
수원	1부	오후 9시	오전 11시30분
	2부	오후 11시30분	
대전	1부	오후 11시30분	오전 11시30분
	2부	오후 11시30분	
남양주	1부	오후 9시	없음
	2부	오후 11시30분	
인천	1부	오후 9시	없음
	2부	오후 11시30분	
평택	1부	오후 11시30분	없음
	2부	오후 11시30분	
강동	1부	오후 11시30분	없음
	2부	오후 11시30분	
양지	1부	오후 11시30분	오전 11시30분
	2부	오후 11시30분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눅 2:1~7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예언하셨고, 모든 역사를 주관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유일한 분입니까. 예수님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무엇이 다른지. 세상의 모든 위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출생 이후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인생을 산 이후에 어떤 자각이나 통찰, 내려놓음 등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후에 얻은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코 종교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이 기독교를 창설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역사가운데 예언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전설이나 신화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위인들이나 종교지도자들의 삶은 ‘언젠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역사적 근거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때 누구를 통해 어떻게 보낼지를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은 2장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 하나님에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출생할지를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강했던 로마의 평화시대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1~2절).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BC31년부터 AD14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황제입니다. 줄리어스 시저의 조카입니다. 그는 줄리어스 시저가 암살당한 후에 클레오파트라에 빠져있던 안토니를 제거하고 황제가 되었습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가이우스 줄리어스 옥타비아누스였는데 후에 시저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행정의 천재라고 불린 사람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로마를 통치한 41년 을 역사가들은 로마의 평화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벽돌로 지은 모든 건물과 도로가 대리석으로 바뀌었고 해적이 드나들던 바다에는 무역선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와 국방이 부강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법과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법치 행정국가가 되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융성해서 헬라문화가 꽃피었던 시대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나오는 시대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온 유대인 지도자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타이밍

초대교회를 연구하는 역사가들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를 통치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세속적인 지도자였지만 그를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통치하던 시절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가장 중요한 준비들이 이뤄졌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에게 나게 하셨다”(갈 4:4).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계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지배하던 때에 많은 길을 닦았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넓은 길이 깔렸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던 곳은 어느 곳으로든지 갈수 있는 좋은 도로였습니다. 좋은 길이 닦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부활 사건이 증거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어와 헬라문화가 보급되면서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던 구약성경이 헬라어로도 번역되면서 이방인들이 구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약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해할 수 있는 사전정보가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갑자기 나타나 메시아로 행세한 것이 아니라 는 것을 깨닫는 기초가 마련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의 평화시대는 완벽한 통치시대였기 때문에 그 어떤 시기보다 메시아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명령 ‘호적등록’

누가복음은 세계역사의 중심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최고 권력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지도자들이 절대 통치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메시아를 이 세상에 오도록 준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아우구스투스가 이룩한 융성기보다 더 큰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역사를 AD와 BC로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세속적인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속역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4~5절).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통치영역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시 메시아의 부모가 될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나사렛에 살고 있었을까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필요로 하는 제사 동물들을 공급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잠간의 휴식처를 제공하는 타운이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젊은이들이 동물을 키우면서 냄새 나는 곳에서 살고 싶어 했겠습니까. 베들레헴 곳곳에서 동물의 분뇨냄새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곳은 젊은이들에게 비전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해야

하는 이유는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회년이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50년이 되면 재산이 원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고 팔수 있지만 원 소유자는 바뀌지 않는 제도입니다.

요셉에게도 조상대로 내려오는 재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소유지에서 호적을 등록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피상적인 이유입니다. 진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막강한 로마의 통치력, 행정력, 정치력이 없었다면 만삭인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움직였을까요. 호적 등록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었다면 아마도 움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 다. 언덕을 올라가는 지형이기 때문에 만삭의 몸으로는 걷기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만약 로마의 강력한 통치가 아니었다면 마리아도 만삭의 몸으로 베들레헴까지 움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의 강력한 통치에는 한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가장 작고 누추한 곳에 오신 예수님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네가 유다 족속들 중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미 5: 2).

베들레헴이라는 명칭도 예수님과 연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풍성한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영적인 생명의 떡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떡집에 태어나신 것이 얼마나 잘 어울립니까.

베들레헴의 역사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역사였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베들레헴에 묻혔습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의 출생지입니다.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벧입니다. 오벧의 부모가 보아스와 롯입니다. 롯은 모압 여인이었다가 베들레헴 출신 남편을 만났지만 남편이 죽고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의 아들이 이새, 이새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있는 동물의 먹이통인 구유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도 가장 작은 마을의 가장 누추한 곳에 오셨습니다.

구유와 십자가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돼 마리아는 첫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6~7절).

빈방이 없었던 이유는 아마도 마리아가 만삭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는 숙소를 이용하는 방법이 선착순이었습니다. 먼저 도착해야 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만삭이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보다 걸음이 늦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방을 잡았기 때문에 그들이 묵을 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이신 곳이 구유입니다.

메시아에게 준 첫 번째 선물이 동물의 먹이통이요, 마지막 선물은 십자가입니다. 요즘 성탄을 맞이하면서 트리 장식을 매우 화려하게 합니다. 그런데 트리가 화려해지면 화려해질수록 불안하고 공허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곳은 화려한 트리가 아니라 구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뉴저지에서 살던 곳은 집집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온 집을 트리로 휘감고 네온사인을 켜는 집이 있는가하면 해골로 뒤덮인 집도 있었습니다. 화려한 트리를 보면서 저는 그분들이 과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맞는지 의심을 했습니다. 최근에 돌아가신 우리나라의 위대한 군인이었던 채명신 장군께서 장군의 묘에 묻히지 않고 사병의 묘에 묻힌 것이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습니까. 그분은 자신과 함께 싸웠던 병사들과 함께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구유에 누이신 그분의 가르침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동물 사육장에서 태어나신 것은 말할 수 없는 겸손입니다. 아무리 열악한 지역이라도 아기는 가장 깨끗한 곳에서 맞이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동물의 먹이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메시아인 그분이 구유에 누이심으로 우리에게

세 세 가지를 가르쳐주셨습니다.

첫째, 누구나 가까이 갈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지 않고 왕궁의 요람에 누이셨다면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과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으로 구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먹이통에 누이신 그분에게 누가 가까이 가지 못하겠습니까. 그 먹이통을 쳐다본다고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든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소외시키거나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누구나 가까이 맞아주십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장소로 구유를 선택하셨습니다.

둘째, 누구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세상에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은 아니가하

것이었습니다. 출생부터 죽음까지 예수님은 가난한 인생이었고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서면 가난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구유보다도 더 지저분하니?”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신 분이어서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가난하심을 통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고후 8:9).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하늘의 침대에 눕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누어야 할 곳에 예수님을 누이고, 우리가 못 박혀야 될 곳에 예수님을 못 박으셨습니다.



는 의문이 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야비하고 잔인한 사람, 인간성이 완전히 말살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셋째, 모든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가져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물의 구유통도 요셉과 마리아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렸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배에서 물위를 걸으셨고, 다른 사람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무덤도 다른 사람의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부유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맞이할 방이 있습니까. 우리의 방은 더럽고 추합니다. 방이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모실만한 방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머라고 하실까요 “구유보다도 더 지저분하니?”

제 마음이 더러워서 예수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그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유보다 더 지저분할까?”

예수님이 오실 여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구유처럼 더럽고 지저분합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오신 것은 더럽고 추한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은 영어로 ‘Room’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지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실 여지가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관계 속에 예수님이 오실만한 여지가 있습니까. 우리의 대화 속에 예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여지가 없습니다. 관계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도 예수님이 들어오실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진이 걸려 있고 십자가가 걸려 있는 물리적 예배당은 있지만 예수님이 들어오실 여지가 없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복된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동물의 먹이통에 오심으로 우리 모두를 부유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도 외롭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은 구별하고 차별하는 사람들뿐이지만
주님은 우리와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편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탄을 맞이하며 외롭고 억눌리고 안타깝고
억울한 고난, 가난, 상처 속에 있는 모든 영혼들
마음속에 구유에 오신 메시아가 임하기를 원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두렵거나 외롭지
않고 가난한 자도 실패한 자도 아니며,
절망에 빠질 자가 아니라는 고백을 하게 하
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일러스트 박정일

12월 23일



박종길 목사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있는데, 별을 보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황금, 유향, 몰약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성탄의 의미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 “헤롯 왕 때에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1절). 헤롯 왕은 능력도 많고 정치적인 역량

도 컸습니다. 반면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주목을 받을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별, 국적, 인종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환경도 다르고, 어떤 분은 버려진 채 세상에서 혼자 인생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입니다. 유대 민족은 로마의 지배 아래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때 예수님은 유대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 모든 상황이 바뀌어갔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이 쉽지 않지만, 상황과 형편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힘과 용기를 가지십시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바뀌고 의미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의 별

을 보고 경배드리려고 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2절).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알 수 없지만 본문에서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먼 길을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은 하늘에 떠 있는 ‘예수의 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의 별을 보고 경배를 드리러 왔듯이, 우리도 예수의 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기뻐하고, 경배드릴 분은 예수님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의 별을 보고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습니다”(3절). 동방의 박사들의 말에 헤롯 왕은 불편했습니다. 사탄도 성탄을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왜곡시킵니다. 요즘 분위기를 보면 성탄의 주인공이 산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놀고 즐깁니다. 어떤 사람은 한 몫 잡는 시간으로 왜

마태복음 2:1-6

곡, 변질시킵니다. 우리라도 예수의 별을 보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떠들썩했지만 누구도 아기 예수에게 가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온통 떠들썩하지만 주인공은 없는 채, 하나님의 사랑을 잊혀진 채 떠돌기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헤롯이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베들레헴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4-5절). 종교지도자들은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성탄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의미가 있는 마을이 된 것처럼, 연약하고 보잘 것 없고 부끄러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이 의미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송구영신 40일 새벽기도회

amazing grace

12월 24일

요셉의 성탄절

오늘 본문은 요셉의 입장에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대개 선물 받는 날, 또는 선물 주는 날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은 많은 추억을 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요셉에게 성탄절은 놀라운 날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입니다. 요셉은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아빠’라는 말을 들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부인이 동정녀 마리아고, 아들이 메시아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 놀라운 은혜도 처음에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지금도 이 일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셉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총격, 혼란, 배신감, 분노,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사건 앞에서 결단을 합니다.

요셉에게 성탄절은 ‘큰일날 뻔한 날’이었습니다. 성경으로 잉태했다는 말을 믿을 수는 없었지만, 그는 여전히 마리아를 사랑하고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집안끼리 파혼을 하려

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요셉이 마리아를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할 메시아의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첫째, 예언, 약속을 따라 태어나야 합니다. 둘째,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합니다.

예언, 약속을 따라 동정녀로 탄생하는 것은 마리아만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요셉의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정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부부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깊이 생각하고 가만히 곱으려고 했습니다(19절). 만약 이때 요셉이 불순종했다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막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성탄절은 ‘놀라운 계시를 받은 날’입니다(20-23절). 이 일을 요셉이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20절). 요셉은 마리아에게 들었던 말을 천사에게도

들었습니다. 마리아에게 들었을 때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해야 합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말했을 때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말을 천사가 확인해주었을 때 요셉은 받아들였습니다(24절). 뿐만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도 받아들입니다.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이라는 말은 다 같은 말로 ‘여호와가 구원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사를 통해 700년 전에 주어졌던 ‘임마누엘’의 약속, 모든 이스라엘의 소망일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약속이요 소망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 중의 약속, 예언 중의 예언은 임마누엘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에덴동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에덴의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 마지막 영광이 무엇입니까? 해, 달, 별 등이 쓸데없고, 하나님이 친히 장막을



반태효 목사

마태복음 1:18-25

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 예언이 드디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태아로, 여인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경험했습니다. 24시간, 365일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성령님을 통해 경험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사건이 되고 내 삶에 열매가 되기 위해 마지막 과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요셉의 순종입니다(24-25절). 이 놀라운 은혜, 인류에게 임한 성탄의 은혜가 역사적 사건이 되고 은혜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12월 25일 / 성탄메시지



목자들에게 전해진 좋은 소식

누가복음 2:8-20



이재훈 목사

첫 번째 성탄은 세상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 없었습니다. 약속하신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 그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왜 천사들이 등장할까요?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존재는 천사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소식을 들어도 믿지 않고, 가감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 승천까지 그 모든 과정에 천사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자들에게 전해진 소식

이 천사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된 사람들은 목자들이였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다고 했고,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경배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 복음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선별적으로 섬세한 의도에 따라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목자가 왕을 경배한다는 것이 신분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서는 왕의 경배에 합당한 사람들, 즉 멀리 이방에서 온 동방의 박사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반면 누가복음에서 목자들이 등장하고 박사들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분을 강조하

기 위해서 목자들이 경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 연극을 보면 구유에 누운 예수님을 경배할 때 박사들과 목자들이 함께 등장하는데, 사실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것은 구유에 있을 때가 아니라 집에 있을 때였습니다. 또한 별이 나타난 시점과 박사들이 여행을 한 거리를 계산해 보면 일정한 기간이 흐른 시점에 박사들이 경배하러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박사들과 목자들이 함께 구유에 누운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은 사실적이지 않습니다. 구유에 누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사람들은 목자들 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증거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목자들이 당시 사람들에게 배척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들판에서 살았습니다(8절). 또한 그들은 밤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냄새나는 양땀을 지키며 그들과 뒹굴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성읍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는 사람들, 사회적 영향력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소외되고 배척되고 버림받은 사람처럼 취급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제일 먼저 성탄의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니까? 어떤 소식이든지 누구에게 먼저 전해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보는 힘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는 일반인과 다른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다 아는 정보를 지도자만 모른다던가, 반대로 지도자로서 알아야 할 정보를 모른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정보를 다 공유하는 것은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정보를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정보를 잘못 다루는 사람들에게 정보가 주어진다면 국가는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경배하기 위해 서둘러 간 목자들

그런데 지금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소식을 전하는 순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몇 가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째, 하나님께 버림받은 영혼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은 차별

하고 구별했지만 하나님은 목자들을 소중한 사람으로 보셨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영혼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소개하셨습니다(요 10:11). 아마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혐오하는 직업, 힘들어 하는 직업으로 자신을 소개하실 것입니다. 목자에게 가장 귀하고 긴급한 소식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 목자들은 빨리 달려가서 주님께 무릎 꿇고 경배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15-17절). 목자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자들은 자신의 양들도 버려두고 달려갔습니다. 이 단순한 믿음, 순전한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지식, 교육, 경험으로 초자연적인 신비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부터 자연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순수하고 영적입니다. 우리는 빌딩 숲속에서 인간이 만든 세계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느끼지 못하면서 우리의 영혼은 영적 감각이 뒤떨어졌습니다. 목자들은 양 한 마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연속에서 그들은 도시인들, 지도자들이 갖지 못했던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즉각적인 반응,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성탄의 기쁨을 노래해도 세상이 놀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나온 우리에게 놀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놀라지 않는데 누가 놀라겠습니까? 목자들이 서둘러 예수님을 보러 했던 그 마음, 그 긴장감, 그 순수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트리는 구유였고, 마지막 트리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아기 예수를 경배했던 목자들의 긴급한 순종, 서둘러 가서 예수를 경배했던 그 목자의 서두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악한 일에는 서두르지만 선한 일에 서두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행을 가거나, 나 자신을 위하거나, 좋은 음식을 먹는 데는 서두르는데,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에는 서두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

배하고 예배하는 일에 서두르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일에 서두르십시오. 용서하는 일에 성급하십시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천사들이 전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 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전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눅 2:10-14).

하나님께 일어나는 일과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리지는 사건이요, 땅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하는 사건입니다. 왜 영광과 평화가 함께 등장하는 것일까요? 이 땅 위에서 진정 평화가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평화가 없을까요? 마음, 공동체, 인간관계에 평화가 없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가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가정에는 반드시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그토록 수 많은 사람들이 수 없이 많이 예수님을 칭찬했지만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공동체에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합당한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복된 땅에 왜 평화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된 땅을 위해 “하나님, 복된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온전히 그 땅에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복된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2월 26일



이 훈 목사

사도바울은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11-12절). 이 비결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울이 소유했던 놀라운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쉽게 흔들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모든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계십니다(엡 4:6).

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엄마의 태중에 있는 아이는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합니다. 태아를 향한 엄마의 사랑이 그를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철없이 뛰어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둘러싼 부모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는 약하고 가진 것도 없지만, 안심할 수 있는 이유,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랑이 있음을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녀의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렐 4:13).

둘째,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요 14:13).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아십니까? 태중의 아기는 엄마 안에 있지만 아기 안에도 엄마의 DNA가 있습니다. 아기는 엄마 안에 있지만, 엄마도 그 아기 안에 있는 것입니

다. 믿음은 참 신비스럽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보면 대단한 생명의 힘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제한하려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넣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요 10:10). 우리 속에 하늘의 생명을 불어 넣으시고 그 생명이 풍성해져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내적인 힘,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셋째, 우리의 관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태어난 아기는 부모 아래에서 형제들과 관계를 맺고 살게 됩니다. 아이들 사이에는 종종 다툼이 일어나고 때로는 심각한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과 권위 아래에서 화해하고 다시 더불어 살아가는 조화를 배우게 됩니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갈등과 분쟁을 겪지만 특별한 사랑의 돌봄과 지지속

빌립보서 4:10-20

에서 아이들은 조화로운 길을 배워갑니다. 용서도 구하고 용서를 받고 또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고 또 도움도 받는 사랑의 나눔을 통해 그들은 더 큰 은혜를 알아가고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막아놓은 벽을 넘어서 밖에 있는 지체들과 다시 만나서 사랑의 나눔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진정 바라십니다. 그제야 비로소 우리 안에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크고 특별한 것인지를 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나눔뿐만 아니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두르고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관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은 그 풍성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19-20절).

송구영신 40일 새벽기도회

amazing grace



12월 27일

하나님,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4:1-14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1절)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근심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근심했습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도 믿으라”고 하십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이것이 다 준비되면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있을 것이다”(2-3절)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그 길을 안다”(4절)라고 하시는데 의심의 대명사인 도마가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5절)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6절)는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의 옆에 있던 빌립도 “예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7-8절).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모세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호렙 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와 능력을 다 보여주셨습니다(출 3:13-15). 그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14절)라고 하십니다. 15절에 ‘여호와’라고 하는 부분은 히브리어로 자음만 있는 부분입니다. 유대인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 닥시, 삼마, 라파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모릅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숨어계신 분입니다(사 45:14).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야 “내 주시며 내 하나님이시니다 라

는 고백을 합니다”(요 20:28). 예전에는 길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랐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우리가 훨씬 더 복이 있습니다(요 20:29). 만나지는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골 1:15)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 풍성한 삶,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주님과 관계가 중요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내 삶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



이재환 목사

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구약의 백성들, 율법의 사람들, 타종교는 그들의 신을 위해서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셋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천하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행 4:12, 사 46:9).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기독교를 보고 교만하다, 독선적이다, 라고 합니다. 저도 다른 종교도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없습니다. 우리는 독선적이지 않습니다.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12월 28일

“응답하시든 하지 않으시든 나의 하나님”



이영표 집사(축구선수)

2001년 처음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저는 너무 놀라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안양 LG 치타스 팀에서 선수생활을 하고 있을 때인데, 저희가 이란으로 아시아챔피언스리그 경기를 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저를 치료해 주는 형이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많이 알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 때 선배 2명이 치료실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표야, 너는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되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너만 열심히 잘 믿어.” 그래서 제 방으로 오는 길에 “저 형들 이야기가 맞다. 내가 혼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지 왜 다른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듣고, 성경에 대해 아는 척을 했을까? 나 혼자 잘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방에 들어와서 미국 전지훈련 때 어떤 집사님께 선물하신 책의 가운데를 펼쳤는데 페이지 전체에 딱 한 줄,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의 침묵은 죄악이다.”

저는 성경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생각도 감찰하신다는 것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1-2일 정도 있다가 그 책을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는 그 구절이 없었습니다. 한 페이지에 한 줄 써 있는 페이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후에 어디를 가든지 위의 구절을 항상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하나님을 처음 경험한 일입니다.

2002년 월드컵이 끝난 후 저는 유럽에서 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스스로 볼 때 저는 유럽에서 뛸 수 있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간혹 공격수가 해외에 나가는 일은 있었어도 수비수가 나간 적은 없었던 때였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실력이 부족하지만 유럽에서 뛰고 싶습니다. 저를 유럽으로 보내주세요.” 그런데 정확하게 2002년 11월 24일 세 번째 주일날 본당에 앉아서 예배 전에 찬양을 드리는데 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유럽에 보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찬양이 끝난 다음에 그 말을 성경책에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마음이 바뀌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스카웃 제의가 온 것도 아니었고, 제

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도 제가 유럽에 가고 싶어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저는 유럽에 간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2주 후에 히딩크 감독님께서 PSV 아인트호벤의 감독님이셨는데,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 때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스카웃 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PSV 아인트호벤에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친구들과 기자들이 “어떻게 유럽에 가게 됐느냐?”고 자주 묻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유럽에 갔다”고 말합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뛸 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생신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함께 어떤 선물을 드리는 것이 좋을지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넥타이, 양말, 가방 등 7-8개의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맨 마지막에 양복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순간 아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양복이 좀 비쌌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한 개씩 종이에 썼습니다. 그리고 통에 넣어서 뽑기를 했습니다. 목사님께 꼭 필요한 것을 선물할 수 있게 해달

라 하시더라고요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사과를 먹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이 사과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몇 년 전에 누군가에게 사과 나무를 심게 하시고, 햇빛과 바람을 주셨고, 누군가의 손을 통해 나에게 이 사과를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었다 그치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우리 인생의 작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얼마 후에 또 사과를 먹었는데 그 사과는 맛이 없었습니다. ‘이 사과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 동시에 얼마 전에 주셨던 맛있는 사과가 생각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맛있는 사과를 먹든 맛있는 사과를 먹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전에 제게 네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월드컵이 끝나고 다음 해 6월에 해

기도를 했는지도 잊어버리고 또 다른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나 자신을 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웠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기도제목조차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또 다른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저를 보면서 제 자신이 한심하고 하나님께 죄송했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이틀 앞두고 제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훈련 중에 종아리 근육 부상을 당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종아리 근육이 12cm가 찢어졌고, 회복하려면 3개월이 걸린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서운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국가대표로 보내주셨고, 1년 반동안 정말 전 세계를 다 받으면서 이겨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1년 반동안 있어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선교사님과 통화를 하다가 선교사님이 읊기를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읊기를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것은 제가 모르는 하나님을 위한 월



라고 기도하고 뽑았는데 양복이 나왔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그 종이를 넣고 아내에게 다시 뽑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또 양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식사를 하자고 말씀드린 다음에 양복점에서 양복을 맞춰드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목사님께 겨울 양복이 딱 한 벌 있었는데 그걸 4-5년 계속 입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3달 지난 후에 목사님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양복점으로 인도하는 순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한번은 정말 말도 안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제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정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문자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동안 고민하던 문제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발신자를 봤더니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사자마자 “처음 샀는데 하나님의 전화번호가 없으면 안되겠다” 생각해서 하나님의 번호를 1004번으로 저장했었는데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그런 메시지를 단 한 번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외로 가기 위해서 집을 정리하는데 종이 쪽지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월드컵때 새벽기도했던 네 가지 기도제목이었습니다. 네 가지 기도 제목은 월드컵 이전에는 모두 다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들은 월드컵을 한국을 알리고 경제를 회복하는 기회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그곳에서 무릎꿇고 기도하고 주님께 드리는 영광의 월드컵이 되길 원합니다.

둘째, 16강 가게 해주세요. 당시 대한민국 축구는 월드컵에서 단 1승도 못했습니다. 1승도 못한 팀이 16강에 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셋째, 저 유럽 진출하게 해주세요. 저는 신체적으로 절대 유럽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넷째, 군대를 정당한 방법으로 면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놓고 기도했는데 한 가지 한 가지가 너무 컸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크게 기도하는 건 아닙니까? 2개 정도는 뻥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그런

드컵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내 실력을 인정받아서 유럽에 진출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께 가졌던 아쉬움, 실망감이 분노가 아니라 죄송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니?”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축구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을 날 위해 포기할 수 있니?”라고 하실 때 저는 포기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기쁨 가운데 대답한 말이었습니다.

김스를 하고 왔을 때는 땅에 던지도 못했었는데 다음 날 아침, 걷기도 하고 조금 뛰기도 했습니다. 스태프들은 진료가 잘못됐다, 오진이니깐 다시 받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진료를 다시 받지 않고 뛰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두 경기는 뛰지 못했지만 세 번째 포르투갈전에서 경기를 뛸 수 있었습니다. 보통 10일 정도 쉬면 체력이 떨어져서 90분 경기를 소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경기는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박지성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 하게 되었고, 기도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고 예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영광을 받아주셨습니다.

크리스마스

MERRY
CHRISTMAS

크리스마스에는 사랑과 축복을

- 1 양재, 김영미 권사의 '사랑 나눔 콘서트'
지난 25일 양재 사랑홀에서 새터민,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열렸다. 소프라노 김영미 권사와 그의 제자들이 오페라 곡과 캐롤송을 불렀고, 두번의 앵콜이 외쳐질 정도로 콘서트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 2 대학청년부 이웃에게 전한 값진 사랑(愛)
온누리 대학청년들의 활약은 올해도 돋보였다. 청년들은 사천, 익산, 화천, 진천 등 전국 각지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찾아가 따스한 마음을 전했다. 특히 갈렙공동체는 종로구가 지정한 '우리동네 나눔이웃'으로 선정돼 위촉패를 받았다.
- 3 M센터, 청년들과 함께 보낸 풍성한 성탄
온누리 대학청년들의 활약은 올해도 돋보였다. 청년들은 사천, 익산, 화천, 진천 등 전국 각지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찾아가 따스한 마음을 전했다. 특히 갈렙공동체는 종로구가 지정한 '우리동네 나눔이웃'으로 선정돼 위촉패를 받았다.
- 4 온누리요양센터, "성탄의 기쁨 나눠요"
지난 24일(화) 온누리요양센터에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한 손길이 이어졌다. 이날 대학부 Pole2공동체에서 26명의 청년들이 방문해 어르신들의 식사보조와 워싱, 연주 등의 공연을 선보였다. 같은 날 Think커피에서는 변동코이노니아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 5 서빙고, 본당에 올려 퍼진 칸타타
서빙고 본당에서는 주찬양성가대가 칸타타를 선보였다. 이날 주찬양성가대는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온 캐럴을 30여 분 동안 열창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칸타타 중간에는 탭댄스 공연도 펼쳐져 볼거리를 더했다.
- 6 여호수아 전도집회, '크리스마스 이야기'
여호수아공동체는 12월 한 달 동안 강남역과 양재역 노방전도를 통해 전도집회 초청장을 나눴고, 주변 친구들을 초대해 22일 전도집회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열었다.
- 7 온사랑합창단이 선사한 아름다운 노랫소리
25일 오전 11시30분 성탄예배 후, 서빙고 로비에서는 장애인들이 선사하는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날 온사랑합창단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온 힘을 다해 찬양을 불렀고, 이를 구경하는 성도들로 로비가 가득 찼다.
- 8 강동,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성탄
강동 온누리교회는 이번 성탄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21일에는 청년부 주최로 맞춤형전도집회 '착한파티'가 열렸고, 24일 저녁 8시에는 교회 앞 나비쇼핑몰 옥외무대에서 성탄공연과 노방전도가 진행됐다.



나눔의 절기, 성탄절을 돌아본다



이창규 목사

성탄절만큼 모든 이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전 세계적인 절기가 있을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성탄의 계절인 12월은 기쁨과 소망, 그리고 행복감을 전해주는 축제의 계절이다. 다년간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한 선교사님에 의하면 아랍 무슬림들도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중동 지역은 한겨울에 눈 내리는 지역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선물을 주고받으며, 대부분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킨다. 성탄절을 특정종교의 행사라고 여기는 사람들보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사랑하는 날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만큼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함께 어우러져 사랑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기회라는 생각이 든다.

성탄의 계절을 보내면서 바람직한 성탄 문화에 대해 생각해 본다. 어떻게 하면 성탄절을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을까? 성탄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탄의 깊은 의미를 전해줄 수 있을까? 신학적으로 볼 때,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랑과 자비, 낮아짐과 섬김을 보여주시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성육신 사건이라는데 깊은 의미가 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품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한다. 성탄절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라는 위임명령이다. 세상의 아픔과 고통, 신음 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거룩한 사명감으로 살아가라는 말이다.

어린 시절 성탄절을 생각하면 잊혀지지 않는 아련한 추억이 있다. 내가 자란 곳은 300여 가구가 모여 사는 농촌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 중심부에 작은 시골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성탄절이 되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축제가 벌어졌던 것을 기억한다. 성탄 이브 유년주일학교 발표회 때에는 온 마을이 웃음꽃으로 떠들썩했다. 성탄 당일 새벽송을 돌며 가가호호 방문했을 때, 예수 믿

지 않는 가정들도 우리를 환영했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요즘은 이러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지만,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 동안 다녔던 한 미국교회에서 새벽송과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였는데, 12월 한 주일 저녁 가족 단위로 교회에 모여 20여 명씩 조를 이루어 인근 지역 주택가를 방문하였다. 소위 새벽송(?)을 돌며, 설교 CD와 선물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 가족이 참여하면서 현대판 “새벽송”을 경험하고 성탄의 의미와 기쁨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었다.

사실 성탄절만큼 나눔과 사랑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것 같다. 가족들 간에도 성탄절은 서로에게 사랑과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다. 단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는 차원을 넘어서 자녀들 또한 작지만 정성스럽게 고마움을 전할 때 성탄절은 더 큰 의미로 가정 가운데 다가올 것이다. 생각해 보니 내가 아이들에게 받은 가장 좋은 성탄 선물도 다른 것이 아니라 정성껏 준비한 카드(직접 만들면 더 좋겠지만)와 작지만 의미있는 선물(예를 들면, 내가 좋

아하는 초콜렛 과자)이었다. 그리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게 집에서 준비한 음식(예를 들면, 쿠키)과 함께 성경 구절이 적힌 작은 쪽지를 전해주는 것도 좋은 선물이 될 것 같다. 그리고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 자녀들의 경우 반 친구들에게 카드와 작지만 정성이 들어간 선물을 나눈다면 성탄의 기쁨은 배가될 것이다. 흔히 우리는 큰 선물을 주어야 다른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작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작지만 정성이 깃든 소박한 선물이다.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깃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될 때, 그 선물은 참된 성탄선물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선물은 바로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셨다. 성탄의 계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쁨이, 위로가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아름답게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6).

3



4



7



8



키워드로 보는 2013 온누리교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2013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를 표어로 힘차게 달려온 온누리교회.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을 위한 기도운동 마리아행전, 복음통일을 준비한 블레싱 한반도, 산 넘고 바다 건너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기 여름 아웃리치 등 교회와 성도, 이웃들을 섬기며 세상에 희망을 주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았다. 하나님과 함께 보낸 2013년을 되돌아봤다.

■ 끊이지 않는 기도열전

새벽기도회 · 심야기도회

온누리 모든 캠퍼스, 해외비전교회, 기도처 등지에서 2012년 12월 17일부터 2013년 1월 26일까지 진행된 40일 특별새벽기도회. 40일 동안 새벽을 깨운 온누리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족을 위해 뜨겁게 부르짖었다. 고난주간에는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긴 ‘고난주간 특별심야기도회’를 열었다. 십자가를 목에 걸고, 하루 한 끼 이상 금식했다. 금식한 금액은 동공고 긴급구호를 위한 헌금으로 사용되었다. ‘송구영신 40일 새벽기도회’로 거듭난 40일 새벽기도회가 지난 16일부터 온-누리에서 진행되고 있다.



■ 블레싱 한반도

고성에서 파주까지, 파주에서 평양까지, 평양에서 열방까지

온누리교회와 선교단체, 남한과 북한 청년들이 한반도를 향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었다. 8월 9일부터 24일까지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임진각까지 15박 16일 동안 ‘복음통일’ 기도하며 320km를 행군했다. DMZ자전거 투어, 일일 온누리 가족복음통일행진도 이어졌다. 울어라 한반도여를 시작으로 막 오른 한반도를 위한 기도집회는 8월 31일 순장영성수련회에서 진행된 ‘노래하라 한반도여’로 대미를 장식했다.

■ 2013 국내외 아웃리치

산 넘고 바다 건너 ‘전하고 · 가르치고 · 고치고’

2013 여름 아웃리치에는 국내외 합산 265개팀 7,838명이 참가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수고의 땀방울을 흘렸다. 대청 2,683명, 서빙고 1,943명, 양재 1,798명, 캠퍼스 1,414명 등 총 7,838명이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국내 강원도(37팀), 경기도(20팀), 전남(19팀), 해외 동남아(48팀), 동북아(21팀), 중동·유럽(10팀) 등지에서 전도, 의료사역, 어린이사역 등을 통해 복음을 전했다.



■ 온누리 축제

신앙의 삼박자 기도, 회복, 사명

올해 온누리 축제는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의 회복을 간구한 마리아행전이 포문을 열었다. 4월 24~26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분당에서 ‘하나 됨’을 주제로 열린 2013 마리아행전은 나라와 민족, 열방의 어머니가 되기로 작정한 마리아들의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났다.

근심으로부터 자유를, 상처로부터 치유를, 묵임으로부터 놓임을 경험한 은혜의 장이었다. 왕이신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신 것이 분명했다. 9월 11~13일 열린 회복축제에 참석한 1천 9백여 성도들이 치유와 회복, 자유를 만끽했다.

10월 9~11일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열린 부흥축제는 ‘제자로 살겠다’는 결단의 시간이었다.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 온 성도들이 옛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생명으로 부활해 변화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이어졌다.

■ 맞춤전도집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6월 3일 65세 이상 부모 위한 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 6월 6일 청소년 전도집회 ‘닉 부이치치와 함께 하는 Hug’, 11월 25일 신혼부부 위한 맞춤전도집회 ‘커플 Look’ 등 맞춤전도집회의 역사는 계속되었다. 세대별 맞춤 전도집회의 은혜가 풍성했다. 부모를 처음 교회에 모시고 온 딸, 남편이 구원받기를 간구한 아내가 흘린 눈물이 열매를 맺은 축복의 장이었다.



우리 총무님 **초고!**

산본안산, 서초C, 송파, 강남B

공동체의 숨은 보물, 바로 '총무'다. 담당 교역자와 담당 장로를 보좌해 공동체 실무를 총괄하며 교회 행사와 각종 교회 봉사 여부확인, 공동체 행사 진행, 순 출석 확인, 참석여부를 묻는 문자 발송까지...

공동체 구축구석 총무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12월 한해의 마침표를 찍으며 양재 온누리교회 공동체 총무 4명(산본안산, 서초C, 송파, 강남B)을 만나 그들의 한 해 동안의 총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조은실 기자

‘꽃보다 총무’ 오늘도 달린다

올 한해 공동체의 결실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산본안산: 종강예배를 드리면서 순원 확보를 위해 ‘전도행사’를 함께 했습니다. 6명이 교회 등록을 했고 순에 배정되었습니다. 올 한해 가장 뜻 깊은 행사였습니다. 또 몇 년 만에 ‘바자회’를 열었는데 참여도 많이 하고 모두가 열심히 섬겨줘서 모인 후원금으로 해외 아웃리치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즐겁고 기분 좋은 추억으로 남습니다.

서초C: 많은 은혜 가운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실은 ‘공동체 인프라가 구축’되고 ‘중보기도모임’이 매주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권사님들이 눈에 싹뿔이 터질 정도로 꼼꼼하게 나오지 않는 순원 한명한명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려, 충분히 의사 표현을 묻고 결정해 100명의 무명 순원이 정리되었고, 그 중 10%인 10명이 다시 순으로 복귀했습니다. 6개월 동안 정리하고 복귀시키면서 공동체 수첩과 아이케어 상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를 완전히 일치시켰습니다. 중보기도모임은 아이케어에 모인 순 기도제목들을 취합해 순별, 환우, 책임선교사 기도제목으로 분류해 엑셀파일로 만들어서 저희 집에서 10여 명의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송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웃리치입니다. 스리랑카에 가서 한국이주노동자로 왔다가 목사가 된 발터 형제를 만나게 되면서 공동체가 이주 노동자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도 지속적으로 그 형제를 후원하고 이주노동자들을 돕기위해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국내 아웃리치를 참여하면서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 아웃리치를 경험하게 되고 총무 입장으로는 공동체 일꾼을 발굴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강남B: 한 해 동안 선교마인드를 순까지 고취시키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다락방별로 선교사역자를 지정했고, 순에서 선교사 기도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책임선교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5월 체육대회와 6월의 목상의 집에서 한 힐링캠프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교제와 친목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름 아웃리치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230명이 강화도의 교동도라는 섬에 들어가 의료선교와 전도사역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순의 믿지 않는 남편을 대상으로 전도 행사를 가져 4명이 영접하고 2명이 순에 등록하는 결실도 맺었습니다.

총무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되고, 그 안에



양재 온누리교회 공동체 총무 4명(왼쪽부터 이병하 총무(서초C), 이호영 총무(강남B), 차춘근 총무(송파), 강치욱 총무(산본안산))이 환하게 웃고 있다.

▶총무란?

“순원을 잘 안내하는 ‘네비게이션’”-강치욱 총무(산본안산)
 “충실히 일하는 ‘머슴’”-이병하 총무(서초C)
 “공동체 섬기는 ‘팀장’”-차춘근 총무(송파)
 “뉘고 조이고 정비하는 ‘운전기사’”-이호영 총무(강남B)

▶함께 나눠요. 총무 노하우!

- 공동체 활동할 때 일꾼을 발굴해 업무를 분담
- 개인 영성관리를 소홀히 않길!
- 연초에 아이케어 주소록을 분류해두어 문자 발송을 쉽게!
- 결정이 어려울 때 리더십들과 머리 맞대면 수월!

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산본안산: 순 조직개편에서부터 모든 행사 기획, 운영, 순장모임 준비, 예배섬김 등을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어려운 건 ‘리턴(돌아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보내면 답은 오지 않는데, 교회에서는 답을 달라고 하니 어디 말할 때도 없고 참 어렵습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출장이 잦아 해외와 지방에 자주 나가게 되는데 멀리서 총무 일들을 함께 병행하기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서초C: 제가 총무이기 전 순원 일 때 기도제목을 내면서 정말 누군가가 이것을 기도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총무가 되면서 아이케어 상에서 각 순의 기도제목을 보니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리더십들과 충분히 이야기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기도모임을 열게 됐습니다. 총무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관계’입니다. 처음 한 달 동안 총무로 섬기면서 교회 안에서 저의 정체성

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장례사역도 섬기고 있는데 총무와 비교해보면 총무는 관계의 문제가 있어 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송파: 총무는 조종자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인중개사 일을 하고 있는데 바이어와 딜러를 두고 중간자 역할을 하듯이 목사님과 장로님, 다락방장, 순장님의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점은 간혹 ‘외롭다’는 느낌이 들 때 입니다. 저희 공동체는 순장공부를 도곡 교육관에서 새벽에 했는데 시작할 때 불을 키고 끝나고 제일 늦게 뒷정리하고 나오면서 간혹 외롭다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총무는 제자리를 지키며 해내야 하기 때문에 어디 말할 때도 없고 외로운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관계’입니다. 다락방장님들도 직장과 가정에서도 바쁜데 교회일로 총무가 계속 일을 주면 많이 힘들어하시고 간혹 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음이 어려워

니다.

강남B: 총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다락방장님과 순장님을 잘 보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도 그분들의 전화나 요청이 있으면 우선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특히 순장에 의해 순이 살고 죽는 것을 한 해 동안 보면서 순장을 잘 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려운 점은 올해 강남B는 90명 정도 새가족과 전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나갈 때 마음이 힘듭니다. 통화해보면 타 교회에서 상처받고 온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순에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다락방, 순장, 일대일 사역자가 순에 잘 배치하고 지속적인 케어를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순장님을 볼 때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무이기 때문에 받는 은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산본안산: 5부 예배 위원으로 섬기면서 오는 성도님들을 반기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 궁금해지고 기대하게 되는 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또 아내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도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서초C: 힘들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적비밀을 더 깨달아 갑니다. 어려운 것들을 처리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와 내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이 큼니다. 또 일년을 돌아볼 때 목사님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고 연합되는 모습이 은혜입니다.

송파: 예수님의 인격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떨 때는 처리하기 힘들 정도로 일이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을 택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되어져 갑니다. 또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의 참의미를 깨달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강남B: 장로님들과의 교제 속에서 좋은 격려의 말씀을 들으며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또 올해 총무 일이 많아 사업에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는데 매출이 30~40%가 올랐고, 아들이 고3이었는데 원하는 대학에 수시로 붙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내가 제가 총무로 교회를 열심히 섬기니 주신 축복이라면서 내년에도 총무를 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원해주셔서 기쁩니다.

/ 대담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 입니다

서빙고, 양재 전도집회
‘크리스마스 포유’

지난 18일 서빙고와 양재 은누리 교회에서 수요일전여성예배의 특별한 전도집회가 열렸다. ‘크리스마스 포 유(Christmas For You)’가 바로 그것. 서빙고는 이날 70여 명이 초청되어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다. 집회는 ▷초청자 영상 ▷The Blessing Chamber 특순1 ▷한스밴드 한샘 특순2 ▷가수 알리 특순3 ▷말씀-이종실 목사 ▷영접기도 ▷축도 ▷교제 및 식사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행복찾기 희망찾기’를 주제로 말씀을 전한 이종실牧사는 “예수님만이 진정한 행복이자 ‘희망’이다. 여러분의 의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선택해서 소망 가득한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양재는 하나님의 걸작품을 주제로 한 드라마와 가수 심수봉의 특순, 박종길 목사 말씀, 새신자 환영, 촛불 세례모니 등 풍성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이날 율계언니를 따라 왔다는 박해정 씨는 “찬양팀의 행복하게 찬양 부르는 모습과 목사님



의 말씀이 참 좋았다”며 “교회에 더 관심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이날 양재는 54명이 결신했고, 37명은 교회로부터 더 많은 소개를 받고 싶다고 답했다.

브릿지33+ ‘프리존’

브릿지33+공동체 ‘프리존’ 전도 집회가 지난 22일 열렸다. 홀로그램 영상과 움직이는 로봇, 한눈에 보는 사진전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참석자들을 맞이했다. 집회는 ▷성가대 찬송 ▷지은채 자매 간증 ▷스킷드

라마 ▷장경철 교수(서울여자대학교) 말씀 ▷환영 및 공동체 소개 ▷순장 위십댄스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장경철 교수는 ‘예수 믿으면 무엇이 좋은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했다. 집회 마지막에는 김현실 목사를 비롯한 브릿지 지체들이 플래시몹 이벤트를 펼쳐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조유진, 조은실 기자

2014 JDS 간사반 개강

“먹이고, 내어주고, 따르라”

2014 JDS(예수제자학교) 간사반이 개강했다. 지난 21일 서빙고 시온홀에서 JDS 간사 개강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백흥기 장로의 대표기도, 이훈 목사의 설교, 중보기도, 스쿨 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설교에서 이훈 목사는 JDS 간사들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주님을 위해 ‘양을 먹이고, 내어주는 삶을 살고, 주님을 따르

라’고 권면했다. 2014년 JDS는 서빙고, 양재, 부천 주간반, 서빙고, 양재, 수원, 인천 과정으로 진행된다. 은누리교회 간판 양육 프로그램인 JDS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할 제자가 되도록 훈련하는 학교이다. 문의: 3215-3266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MK라서 감사합니다”

MK는 선교사자녀(Missionary Kids)를 지칭하는 단어로 성장기 대부분을 선교지에서 보낸 아이들을 말한다. 지난 26일, 서빙고 한동홀에서 MK를 위한 감사의 날 행사가 열렸다. 선교사와 선교사 자녀, 후원자, 중보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 한해를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아 MK들의 깜찍한 율동과 청년 MK들의 간증은 보는 이들의 마음

을 훈훈하게 만들었다. 희귀병을 앓고 있는 예준이를 위해서는 한마음 모아 뜨겁게 기도했다. 도육환 목사(2천선교본부)는 “MK는 이 시대 위해 구별된 나실인이라고 생각한다. 아름답게 성장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 리더십이 될 것이다”고 격려했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간증 부모, 어린이 회복사역 15기 ‘하트스쿨’

“좋은 아빠, 노력하는 아빠”



저는 딸 2명, 아들 1명을 둔 결혼 15년차 회사원입니다. 그 동안 아이를 돌보는데 소홀히 했습니다. 퇴근하고는 야구시청과 술로 저녁시간을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애들끼리 싸우면 고함 치고 매질도 했습니다. 애들은 저를 무서워했고, 저는 아버지의 훈계권을 내세워 강하게 대했습니다. 하트 스쿨 중 감정을 다루는 교육시간에 화를 내는 이유를 생각해보게 되었고, 해결되지 않은 상처로 인해 아이들을 품을 수 없었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제 모습을 다시 보게 됐고, 하나님께 치유해주시길 기도했습니다. 일요일 오후에는 아이들과 자전거를 타면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끝지 못하던 담배도 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올바른 권위를 갖고 아이들을 위해 중보하며 잘 놀아주고 인생을 가이드 해주는 좋은 아빠가 되겠습니다.

/ 예은이 아빠 이희완 집사

“마음이 사르르 녹았어요”



처음에는 하트스쿨에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성당을 다니고 있었고 교회를 다니는 엄마를 교회에 뺏겼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엄마가 하트스쿨에 신청을 했고 어쩔 수 없이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학교에서 인기가 없었습니다. 노래를 크게 부르고 너무 나쁘다는 이해할 수 없고 이상하고 사소한 이유로 아이들이 절 싫어했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트스쿨에 오면서 배우다보니 교회에 대한 미운 마음과 흐트러진 제 마음이 사르르 녹으면서 풀렸습니다. 그러면서 하트스쿨 친구들과도 점점 친해졌고 조 친구들 나영이, 명신이, 의미 그나마 저까지 넷이서 정말 즐겁게 활동해서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요즘은 일요일에 예배도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학교에서는 외롭고 놀림이 심해졌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트스쿨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교회도 열심히 다닐 것입니다.

/ 이주는 어린이

축하합니다

12월 세례자

■서빙고	민경윤 120627	이동경 박정은	손과 970615	김슬기 910920	안형균 심민아	강소희 961227	《J4U》
이도예 680713	민원기 박수연		양연신 671030	김태령 950518	안여름 120713	이은초 970130	강유진 901125
이미호 830320	박예원 120109	■양재	권운금 750414	김희진 931016	안기준 최영은	최예찬 950424	김혜영 880210
이종필 651220	박진형 이기쁨	공운택 780220	태연정 761006	남지연 970622	윤슬아 120130	▷유아	오원석 910226
최민숙 701223	박하늘 120109	김수민 860323	최창순 530219	석희진 970716	윤화경 김주미	유하은 130405	이연정 830725
정도식 750219	박재순 황연정	김영 650715	장재만 780701	김영진 801212	윤초아 120316	유원희 안민정	이기훈 830323
정미희 830621	안예준 120917	김현주 700218	▷유아	김호민 580708	윤무현 이경희	이다인 121112	장미정 840703
조유주 860201	안도희 최은화	신영환 760326	최현호 121211	김희순 540525	이나경 120116	이석우 정성호	한수경 891223
최동욱 630110	오혜인 121227	유연형 850913	최광식 이지예	박경민 790825	이세은	임희락 110726	▷유아
김은경 860512	오창민 김희정	윤주연 631210	조이수 121214	박광희 820521	이서림 120407	임광남 이선경	박주원 130218
▷유아	전주하 121004	이대환 660915	조경학 이윤진	박도연 820701	이중서 오승아	▷입교	박수현 이향주
금예안 111225	전용우 오정원	장미라 711219	양시완 111216	송지아 800702	이은송 130720	권주영 970104	유재이 130408
금보라 박혜경	조예찬 121114	조광순 420123	양정욱 염민경	양은혜 710527	이창순 이지연	권준현 980803	유기남 이형화
김성주 121222	조용민 김선아	조해정 680818	장윤찬 120214	이세은 780616	이은호 121217	김주용 981219	▷입교
김병기 조미영	지승준 130602	▷유아	장주현 이정은	정진주 800627	이원희 최지나		신영신 800210
김순호 120121	지영일 함정임	강동연 111226	■수원	최영은 890806	이하을 130103	■강동	
김태정 최수민	한수아 121119	강은덕 정선주	심미진 810723	▷유아	이동훈 강남주	이선환 800726	《갈렐》
김예찬 120921	한창훈 이소라	고영울 130328	류종근 611127	강우찬 120101	전예준 120814	권재운 350326	이규호 800510
김재형 김묘정	한예주 120109	고태서 김지은	김나희 970304	강지호 최은아	전현우 정현정	장수정 770415	정윤아 881026
김예하 120607	한현진 이지은	김하윤 121021	김지연 970704	고예은 120407	주하진 130917	김지영 690901	차수진 871001
김현철 나영주	한지성 121101	김태일 변정임	김재원 971121	고경수 장혜영	주용재 이옥희	윤정화 601025	▷유아
김주하 111202	한규열 배지윤	김재원 130511	김다혜 950515	김유은 121023	차로아 131026	▷유아	
김광영 강혜연	▷입교	김민범 김수연	정한솔 970515	김관수 권애영	차준철 김애라	김여준 130111	《요셉》
김지아나 120808	김보관 840220	김하윤 120916	심상훈 970721	김윤찬 130809	한승주 130301	김호진 조세진	주용훈 840518
김수이현주	김세린 930117	김동화 정지혜	김민재 971130	김상만 이지희	한효남 김나영	▷입교	《W》
김혜나 130227	박소연 800408	박사랑 120428	유하은 98010	김은재 121205	▷입교	박준서 960506	김윤희 800829
김종민 신혜원	박수희 800301	박종익 이동희	▷유아	김재용 이다운	남경우 970904		장혜진 870410
박예성 130706	유재현 941116	배하울 120106	고은혜 120726	김현우 120916	성가연 790622		최근애 791225
박대훈 이아영	윤수민 831116	배종암 이민희	고강훈 윤혜경	김진국 채윤정	신지혜 970910	▷입교	▷유아
손우현 120611	윤수영 861231	옥예리 120102	오지민 120829	민병석 노근영	이서희 980718	이혜진 890809	김에서 130508
손피득 임영경	최정민 940510	제래미 121103	오종근 정희정	▷입교	이승진 970428	황한나 930322	김현철 박미선
오현주 111214	■열린예배	제치윤 김영일	▷입교	▷입교	이은주 970708	양우희 930705	김새은 130525
유신우 111217	최상희 830828	조은우 120719	조수현 951107	▷입교	정혜민 951016		김대현 옥미경
유원재 방민경	임지은 870106	조영래 정은희	허준우 960220	▷입교			이하빈 130312
이윤서 130528	김욱연 510223	최은찬 130223	이솔 970919	■남양주	《여호수아》	김수진 870124	이형택 이정민
이준영 장윤정	조지홍 771206	최종혁 김슬나	고건호 970531	▷입교	김수현 870124	류승훈 810127	김하영 130426
전은서 110327	전성훈 851012		박강현 971004	▷입교	류승훈 810127	백민정 851206	김근식 정보인
전대호 김미숙	▷입교	■부천	박윤진 970303	▷입교	이경미 820907		《GII》
이정민 120530	오하성 130119	김영희 540417	최수영 971018	▷입교	김혜리 860221	정성인 810103	박지혜 871117
이택재 최지은	오태성 김혜경	김광일 690424	임성은 98011	▷입교	박성우 700528	▷입교	이현정 831120
김명준 120821	구예담 130503	황태선 651029	심아나 130501	▷입교	이남현 830202	배민희 821205	▷입교
김현교 추은영	구주환 백경미	손만호 640928	■대전	▷입교	정찬호 620902		김태근 860407
이지아 121113			김광복 900331	▷입교	조성익 771018		

평택

“협력하는 공동체 세워가십시오!”

8주년 감사예배 및 이·취임예배

지난 12월 22일, 평택 온누리교회에서 창립 8주년 감사예배 및 이취임예배를 드렸다.

평택 온누리는 수원 온누리 4가정의 송탄 순이 모체가 되어 이후 평택에 2개의 순이 탄생하면서 시작되었다. 2002년부터 평택 순원들이 평택 지역에 교회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한 기도모임을 시작했다. 그리고 2005년 12월 25일, 3년 동안 기도한 결실이 맺어져 평택 온누리 교회가 세워졌다.

평택 온누리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예배,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배, 사랑의 나눔이 있는 예배를 비전으로 시작되었다. 또한 차세대 사역 및 외국인 근로자 사역, 캠퍼스 복음화 사역을 위해 힘써왔다. 특히 평택 지역에는 많은 공단들이 있어 5만 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전도사역을 꾸준히 진행해왔으며, 그 결실로 현재 인도네시아어예배 및 몽골어예배

를 드리고 있다.

이취임예배

지난 12월 22일, 8주년감사예배와 이취임예배에서 김명종 대표 장로(평택 온누리교회)는 박철웅 목사를 통해 영적훈련을 받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처럼 3대 담당목사로 세워지는 김소리 목사님을 통해 가나안 땅의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이어 주향기찬양사역팀이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를 부르며 8년 동안 평택 온누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했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갈렙의 신앙’에서 세 가지 본받을 점에 대해 이야기하며 “믿음의 사람, 협력의 신앙, 헌신과 희생의 신앙을 가진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하나 되어 협력하는 공동체를 이루며,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놀라운 신앙을 본받는 평택 온누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 목사는 “이취임식을 하는 두 분의 목사님과 동역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가 연합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포기하는 자리에 항상 서 있을 것”을 권면했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이임사

“은혜의 통로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취임예배를 드리면서 2013년 송구영신새벽예배에서 부른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라는 이 은혜의 찬양이 계속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3년 동안의 평택 온누리 사역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성도님들로부터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 이 마음을 가지고 온누리교회 안에서 더욱더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박철웅 목사

“믿음과 희생의 목회자, 협력하는 동역자 되겠습니다”

취임사



세례요한처럼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라고 부모님께서 제 이름을 ‘소리’라고 지어주셨습니다. 평택 온누리교회와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게 된 것은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너무나 과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믿음의 목회자, 협력하는 동역자, 희생하는 목회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전진을 위해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 김소리 목사

부천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선물 받았어요!”

새터민 세례 받아

지난 주일(12월 22일) 부천 온누리 3부예배에서 한사랑예배에 참석하는 다섯 명의 새터민이 세례를 받았다. 이날 대표로 간증한 양연신 자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자신의 삶을 간증하며,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선물했다.

예배 후에는 한사랑예배 성도들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렸다. 크리스마스 파티에서는 예배에 참석한 새터민들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고백을 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크리스마스를 맞아 춥고 배고픈 새터민 가족들을 위해 따뜻한 내의 및 아기 옷, 김치 등을 선물했다.

한편 지난 11월 28일(목)에는 새터민을 위해 25명의 부천 여성 성도들



이 식당에 모여 200포기의 김장을 담갔다. 지난해부터 새터민 가정 주변에 사는 믿지 않는 가정을 포함한 새터민들에게 정성껏 담긴 김치를 전달하며 복음을 전해온 부천 온누리는 꾸준히 한사랑예배(새터민을 위한 예배)를 드리며 지역 복음화를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를 통해 12명의 탈북민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으며, 새터민을 위한 예배(한사랑예배)가 탄생했다. 새터민들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성도 간에 하나 되기 위해 함께 예배드리는 ‘한사랑예배’는 매주일 오후 2시 3층 꿈아이홀에서 진행되고 있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간증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와서 일대일 양육을 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일대일 동반자과정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양육자반을 들을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한 번 변한다’는 우리말 속담처럼 한국에 정착한지 10년이 된 지금, 지금껏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일들이 기적같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 처음 정착을 했을 때에는 운이 좋아서 한국에 왔다고 생각했는데 온누리교회에 다니면서 제일 먼저 느낀 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험한 길을 함께 하시기에 이곳에 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딸이 무사히 제 곁에 올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께서 저의 자녀들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세례를 받고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나의 연약한 육신은 죽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듭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부족한 이 딸을 사랑하시고 영생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항상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셔두고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 됨을 허락하신 이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딸이 되도록 매일 매일 기도하면서 사는 삶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양연신 자매(한사랑공동체)